고흥군 '선영홍 유허비' 등 향토유산 4건 지정 예고

이건명 유허비·세모재 등 가치 인정

지역 정체성 담긴 자산 체계적 관리

'봉암사 이여재' 道 유산 승격 '해제'

고흥군이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역사·문화적 자산을 발굴해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나선다.

26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9일 향토유산 심의회를 열고 '고흥 어전리 선영홍 유허비' 등 4건을 향토유산으로 지정 예고하고, 1건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유산은 어려운 이웃을 도운 인물의 공덕비와 유배 온 문신을 기리는 유허비, 정려각, 재실 등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자료들이다.

금산면 어전리에 위치한 '선영홍 유허비'는 1913년 기우만이 지은 것으로, 아들 신근의 요청으로 작성된 비문에는 선영홍이 가난한 이웃을 널리 구제했던 행적과 그 은덕을 기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선영홍 관련 비석 중 가장 이른 시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져 의미가 깊다.

어전리 선영홍 유허비.

동일면 덕흥리의 '이건명 유허비'는 조선 후기 문신 한포재 이건명(1663-1722)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다. 비신의 '상지 44년(1768)' 기록과 문헌 '서행록'의 내용이 일치해 1768년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송명흠이 짓고 김상익이 썼으며, 전액은 홍계희가 집필했다. 높이 2.2m의 대형 비석으로 하단부의 독특한 방부 문양과 온전히 전해지는 인물 기록 등 학술적 가치가 높게 평가됐다.

동강면 마륜리에 있는 '고령 신몽권의 처 김해김씨 열부정려각'은 건립 기록은 없으나, 내부에 남아 있는 두 점의 중수기 편액을 통해 역사성을 입증했다.

특히 1860년 기우만이 작성한 '김유인 정려중수기'와 1758년 명정 편액인 '열부 사인 신몽권처 김해김씨지려' 등이 남아 있다. 마을 입구에 위치한 전형적인 정려각 형태로 보존 가치를 인정받았다.

대서면에 위치한 '세모재'는 여산송씨 송사평의 재실로 1905년 건립된 고흥 지역의 초기 재실 건축물이다. 정면 5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구조에 마루와 온돌방이 결합된 전형적 평면 형식을 띠고 있다. 특히 마루 끝부분의 누마루와 계자난간 등 독특한 건축적 특징이 돋보인다.

이밖에 기존 향토유산이었던 '봉암사 이여재'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전남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승격됨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됐다.

고흥군 문화체육과 관계자는 "향토유산은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담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숨겨진 유산 발굴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성학 기자

곡성 농특산물 美 뉴저지 소비자 입맛 공략

내달 3일까지 한남체인 판촉전

토란국수·백세미 등 14종 선봬

교포 밀집 지역 공략 판로 확장

곡성군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14일간 미국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 뉴저지점에서 '곡성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전'을 운영한다. <곡성군 제공>

'곡성의 맛'이 미국 동부 뉴저지 소비자들의 입맛 공략에 나섰다.

26일 곡성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오는 12월3일까지 14일간 미국 포트리에 위치한 한남체인 뉴저지점에서 '곡성군 우수 농·특산물 판촉전'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다.

이번 판촉전은 전남도 해외 상설판매장 지원 사업과 연계해 추진됐으며, 곡성군이 해외 상설매장을 활용해 단독으로 여는 첫 번째 판촉전이라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판촉전을 위해 군은 관내 5개 수출기업의 제품 14개 품목, 총 786박스(수출액 약 5만6천323달러) 물량을 선적했다.

수출 품목은 ▲찰보리·수수 등 잡곡류(미실란) ▲토란 쌀국수 밀키트 4종(심플리잇) ▲찐 냉동옥수수(옥과농협) ▲백세미(석곡농협) ▲볶음김치·냉이된장볼(하루SPC) 등으로 곡성을 대표하면서도 현지 소비자들의 기호를 반영한 제품들로 엄선됐다.

행사 기간 매장 내에는 '곡성군 단독 홍보관'이 운영되며, 이곳에서는 방문객을 위한 시식 및 체험 행사와 할인 판매가 진행된다.

또한 오프라인 POP(상품 매장에 설치하는 광고) 홍보와 현지 SNS 마케팅을 병행해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개최지인 포트리 지역은 한인 인구 비중이 높고 구매력이 탄탄한 소비층이 형성된 곳으로, 곡성 농특산물의 인지도를 높이고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최적지로 평가받는다.

군은 이번 행사를 발판 삼아 정례적인 수출 확대와 미국 내 타 매장 진입, 신규 국가 진출 가능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최초의 미국 단독 판촉전인 만큼 곡성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을 현지 소비자에게 확실히 각인시키겠다"며 "앞으로도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해 지역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수출 기반을 탄탄히 다져나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 기자

"인구 급증 순천 서면에 중학교 신설해야"

오행숙 시의원 설립 촉구 건의안 발의

순천 서면 지역의 인구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중학교가 전무해 학생들이 원거리 통학의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오행숙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전날 열린 제291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면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을 발의했다.

오 의원은 "최근 서면 지역은 대단지 아파트 조성과 정주 여건 개선으로 인구가 1만5천명까지 늘었지만, 중학교는 단 한 곳도 없다"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면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동산초는 전교생이 696명, 학년당 평균 학생 수가 112명에 달하는 과밀 학급 상태다.

하지만 졸업 후 진학할 중학교가 없어 어린 학생들이 인근 지역 학교로 장거리 통학을 해야 하고 이로 인한 통학 안전 문제와 학습권 침해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오 의원은 "지속적인 아파트 입주로 학령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도 중등 교육 인프라는 제자리걸음"이라며 "이대로라면 지역 간 교육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오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와 교육청에 ▲서면 중학교 설립을 위한 협의 즉각 추진 ▲학교 신설 결정 및 예산 반영 ▲중·장기 교육시설 계획에 서면 인프라 확충 포함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 /순천=양홍렬 기자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막는다

내달 12일까지 단속…이상거래 탐지

장성군이 건전한 지역화폐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26일 장성군에 따르면 다음 달 12일까지 '장성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으로, 한국조폐공사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에서 추출된 의심 거래 데이터와 주민 신고 내용을 토대로 정밀 점검에 나선다.

주요 단속 행위는 ▲물품이나 용역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해 환전하는 행위 ▲결제 거부 및 현금영수증 발행 거부 ▲사행·유흥 등 제한 업종 영위 등이다.

특히 고액·반복 결제 패턴을 보이는 곳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적발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점 등록 취소와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한 단속이나 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성군 관계자는 "철저한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투명한 지역화폐 유통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가맹점주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장성=김문태 기자

장흥-고창군, 동학 역사로 맺은 '새로운 동행'

동학혁명 시종점 인연…자매결연 체결

축제·특산물 교류 등 협력·상생 발전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를 공유하는 장흥군과 전북 고창군이 상생 발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6일 장흥군에 따르면 최근 고창군과 자매결연 협약식을 갖고 미래 협력을 위한 '새로운 동행'을 선언했다. <사진>

협약식에는 김성 장흥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양 지자체 간부 공무원 등 270여명이 참석해 뜻깊은 만남을 축하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고창군 간부 공무원 워크숍이 장흥에서 열린 것을 계기로 성사됐으며, 대규모 방문단이 함께해 교류 의지를 다졌다.

양 군은 '동학농민혁명'이라는 깊은 역사적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고창은 혁명의 최초 격전지이며, 장흥은 최후의 격전지로 역사의 시작과 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두 지자체는 ▲행정·정책 우수사례 상호 벤치마킹 ▲대표 축제 및 문화행사 교류 ▲농수특산품 공동 홍보 및 판로 확대 등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합의했다.

김성 장흥군수는 "장흥의 물·숲·문학과 고창의 자연·생명·역사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며 "이번 결연을 통해 상생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자"고 말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도 "이번 자매결연이 양 군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협약식 후 고창군 공무원들은 정남진 전망대(126타워)와 해동사 등 장흥의 주요 명소를 둘러보며 문화 탐방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노형록 기자

보성군 내년 5월까지 산불 대응 행정력 집중

예방·초동대응·안전 '3중 방어막' 구축

진화대원 실전 훈련…드론 감시 등 강화

보성군이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산불 위험이 커지는 시기를 맞아 예방 활동 및 초동 진화 체계 확립에 나선다.

26일 보성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부터 내년 5월 말까지 총 8개월간을 '산불 재난 대비 기간'으로 정하고,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 확립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10일 진화대원 65명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데 이어 21일과 24일에는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주관으로 실전형 진화 훈련을 진행했다.

앞서 17일에는 산림산업과 직원들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합동으로 진화 차량 및 장비 조작 훈련을 반복하며 손발을 맞췄다. <사진>

교육은 연기 흡입 사고 예방, 지형에 맞는 진화법 등 실제 현장에서 필수적인 안전 수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향후 군은 ▲산불 취약지 순찰 강화 ▲진화대 상시 대기 ▲드론 감시 확대 ▲마을 방송 및 SNS 홍보 등 입체적인 예방 시스템을 가동하며, 녹차골향토시장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산불은 예방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빈틈없는 '3중 대응 체계'를 유지해 군민의 생명과 산림 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언 기자

농촌지도자구례聯, 탄소중립 실천 '청장상'

저탄소 신기술 도입 등 호평

구례군은 26일 "한국농촌지도자구례군연합회가 최근 열린 '2025년 농업·농촌 탄소중립 기술실천·확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대회는 농업 현장에서 탄소중립 기술을 실천한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구례군연합회는 심사를 거쳐 전국 5개 우수 단체 중 하나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연합회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탄소 저감 신기술을 현장에 선도적으로 도입해 실증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구례군이 추진하는 ▲친환경 농업 확산 작목별 명품화 사업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저탄소 재배 기술 보급 등에 적극 참여하며 성과를 냈다.

특히 '탄소중립 흙 살리기 공동선언'과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 등을 주도해 지역 내 탄소중립 실천 분위기를 확산시킨 점도 주효했다.

구례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기후 위기 시대에 농업인들이 주도적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해 낸 값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저탄소 농업 기술이 지역 현장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농촌지도자구례군연합회는 535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농업인 학습단체로, 과학영농 기술 보급과 후계자 육성 등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구례=임종길 기자